논어 9편 자한 6장 · 원문·풀이

大宰問於子貢曰：「夫子聖者與？何其多能也？」子貢曰：「固天縱之將聖，又多能也。」子聞之曰：「大宰知我乎！吾少也賤，故多能鄙事。君子多乎哉？不多也！」

독음 · 태재문어자공왈 부자성자여 하기다능야 자공왈 고천종지장성 우다능야 자문지왈 태재지아호 오소야천 고다능비사 군자다호재 부다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공자는 젊어서 가난했기에 여러 허드렛일을 익혔다고 했다. 군자의 가치를 기술의 많고 적음으로만 보지는 않았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大 클 대 대 / 宰 주관할 재 재 / 問 물을 문 문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

子 아들 자 / 貢 바칠 공 공 / 曰 가로 왈 / 夫 지아비 부 부

聖 성인 성 성 / 者 놈 자 / 與 너울너울할 여 여 / 何 어찌 하 하

其 그 기 / 多 많을 다 다 / 能 능할 능 능 / 也 어조사 야

固 굳을 고 고 / 天 하늘 천 천 / 縱 늘어질 종 종 / 之 갈 지

將 장차 장 장 / 又 또 우 우 / 聞 들을 문 문 / 知 알 지

我 자기 아 아 / 乎 어조사 호 / 吾 자기 오 오 / 少 적을 소 소

賤 천할 천 천 / 故 옛 고 고 / 鄙 다라울 비 비 / 事 일 사 사

君 임금 군 / 哉 비로소 재 재 / 不 아닐 불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